1층

나뭇가지에 꾸며서 만든 귀여운 공예품이 창문에 장식되어 있다.

작은 선인장들도 함께 있다.

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주민들이 활용하기 편할 것 같다.

그 옆은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목재 공방처럼 구성되어 있다.

공간이 천장이 낮아 아늑하면서도 넓어서 쾌적하다.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편한 인테리어와 공간일 것 같다.

난방기가 돌아가고 시계가 똑딱거린다. 한없이 늘어져 있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다.

작은마당

안으로 들어가면 흙과 나무가 있는 공간에 의자와 솥이 있는데 야외 바베큐를 먹으면 좋을 것 같다. 폐목재들이 가득해서 공방에서 활용하는 것 같다.

지하

돌센 멋쟁이 라는 가랜드가 걸려있어 분위기가 발랄하다.

음악나눔센터를 들어가면 캐비넷이 구비되어있고 공간이 넓고 통기타 일렉기타 베이스 드럼 키보드 북이 있어서 밴드 연습을 하기에 좋을 것 같다.

공연하기에도 연습하기에도 좋은 공간처럼 보인다.

기타는 줄을 갈아끼워 끝이 삐져나와 있는데 누군가 연습을 열심히한 흔적같다.

재밌어보이는 공간이다!

2층

석관동 미리내도서관에서 온 우드잡지와 여행잡지가 있다.

sunstar사의 재봉틀이 있다.

앞으로 어떤 공간으로 꾸며질지 기대된다.

옥상

정자가 있다.

눈이 내리면 옥상에 소복소복 쌓인다..

나무로 된 상자텃밭들이 9개있고 물뿌리개와 작은 창고가 있다.

봄에 다같이 채소와 꽃을 심으면 좋을 것 같다.

환풍기가 다섯대 있어 여름과 겨울에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 공간인지 궁금했다.

주방

아늑하고 커피 도구가 많다.